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

인경스님(김형록)*

- I. 머리말
- II. 종교집단의 사회참여
- III. 제4차 산업혁명과 종교
- IV. 현대 종교의 새로운 역할
- V. 맺는말

■ 한글요약

본고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대면적 활동에 기반한 종교활동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코로나 불안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할 인간소외와 경제적 스트레스 문제 등으로 종교집단은 기존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찰한다. 첫째로 전통적인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치개입과 불교의 사회참여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선’의 사회적 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고도기술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비대면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인간은 사물과 융합되어서 개별화 과정을 겪게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 교수

될 것이다. 개별화된 인간은 개방/통제와 소통/단절의 갈등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런 시기에 집단 의례 중심의 ‘기도형’ 종교보다는 개인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구도형’ 종교가 미래 종교의 사회적 참여 양식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본다. 넷째는 지난 10년 동안의 힐링 문화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코로나 이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서 명상과 힐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코로나, 기도형, 구도형, 명상, 힐링, 포스트-휴먼, 제4차 산업혁명

I. 머리말

현재 시점에서(2020년 9월 25일) 코로나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90만 명이 넘어섰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숫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에 20만이 넘는다. 이는 최근 미국이 치른 한국전, 베트남전의 전사한 사망자보다 2.5배가 많다는 평가이다(연합뉴스, 2020.09.23). 코로나 확산에 대한 완전한 극복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뉴스1, 2020. 09.24.). 아마도 이보다는 더 길어질 것 같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감기처럼 여전히 유행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인하여 힐링 열풍에 몸살을 앓다시피 했다. 힐링명상, 힐링음악, 힐링음식, 힐링여행 등등 힐링이 문화의 트렌드가 되면서 건강의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문화, 종교학, 인문학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 핵심 키워드였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핵심이슈가 되면서 모든 이런 논의를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네이버 검색량 조희를 해봐도 알 수 있다. ‘힐링’이란 용어는 9월간 검색수가 PC에서 5,980건, 모바일 2만8천 건이다. 반면에 작년까지 제로였던 ‘코로나’란 신종용어는 PC에서 283만 7,500건, 모바일이 1,220만 7,200건이다. 힐링과 코로나, 너무나 차이가 나서 서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모든 언론은 코로나 기사로 가득하다. 모든 개인 생활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돌아간다. 넌컨택트(noncontact)로 사회적인 활동이 금지 내지는 축소되면서, 문화와 종교계는 거의 모든 활동이 멈추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비대면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집콕하면서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과연 명상과 힐링은 죽어버렸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코로나 불안으로부터 진정한 힐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힐링의 의료적 관점이 부각되면서, 힐링의 심리상담적 요소나 종교적인 관점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힐링 곧 치유의 문제는 오늘날 의료적인 건강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종교가 관여했던 영역이다. 불교에서 붓다를 ‘의왕(醫王)’이라고 표현했고, 사찰에는 ‘약사전(藥師殿)’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에바다(ephphatha)’란 용어처럼 치료적 의미로서 기적행위가 많다. 종교는 인간의 신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상담하는 영역을 포함하고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을 치유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찌할 수 없는 정책적

판단이지만, 대면적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심리상담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축과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생명을 위협하면서 급박하게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필요성을 절박하게 자각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전통적인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재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물론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형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상황이다. 이런 새롭게 전개될 시대적 상황에서 본고는 ‘종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금 반성적으로 질문하고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논의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은 아쉽다.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기독교의 정치개입과 불교의 사회참여 경우와 비교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10년 전에 열풍이 일어났던 힐링 문화를 현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검토하고, 미래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과 연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종교집단의 사회참여

종교도 사회의 일원인 까닭에 사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사실 종교는 사회참여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다.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정치개입과 더불어서 불교의 현실

참여를 고찰한다. ‘정치개입’과 ‘현실참여’라는 용어의 선택은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역사 속에서 종교가 사회현상에 개입하는 두 개의 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1. 정치개입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방역당국과 갈등을 노출한 점이다. 종교적 행위는 의례나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런 활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이런 부분은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그리고 종교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 갈등 현상이다.

최근에 필자는 영화 <인페르노(inferno)>를 보았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이전에 제작된 영화인데, 전염병이란 주제라 관심 가지게 되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류의 미래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속도감 있게 경험하였다. 이 영화의 키워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의 의도적 살포, 비밀코드, 그리고 종교와의 갈등 등이다. 이점은 코로나 대유행(pandemic)과 매우 유사한 구도를 가진다. 영화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범죄를 수사하고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력과 권력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현실에서 각국의 질병본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된 점을 상기시킨다.

영화의 모티브는 전염병의 의도적 확산에서 비롯된다. ‘조브리스트’라는 과학자가 폭발적인 인구문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문체의 죽음 ‘바이러스’를 비밀장소에 숨겨두고 죽는다. 그는 바이러스 상자를 보관한 비밀장소를 단테의 지옥도에 비밀코드로 숨

겨두었다. 이 영화는 먼저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확산시키려는 조브리스트의 추종세력과 비밀코드를 해독하여 그것의 위치를 먼저 찾아내서 막아야 하는 로버트 랭던 주인공, 그리고 이들을 체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계보건기구의 숨 막히는 추격전이 이 영화의 중요한 흐름이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관련된 <인페르노>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영화 <천사와 악마>, <다빈치 코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사회와 종교의 갈등이다. 이들은 댄 브라운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들인데, 여기에서 종교와 연관된 왜곡된 요소가 등장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는 종교를 소재로 이용한다. 이런 연유로 영화 <다빈치 코드>가 국내 개봉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는 영화에 대한 관람 거부 성명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소송했지만, 결과적으로 창작의 자유라는 이유로 가처분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한기총 등 기독교 단체들은 교리 회화화를 말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각 영화관마다 ‘<다빈치 코드> 안보기’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갔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영화 관람객, 문화예술인, 반기독교주의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신앙 교리문제 등으로 논란 및 마찰의 대상이 되었다(<https://ko.wikipedia.org/wiki/>). 이 영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처음 개봉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종교계의 반발은 있었지만,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였다.

종교적 가치와 창작의 자유가 서로 부딪칠 때,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종교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창작의 자유가 우선시 되는 ‘민주’시대에 살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갈등은 종교가 우위를 차지하던 중세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태이다. 그만큼 종교는 현대사회 속에서 주도적 가치를 뺏겼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례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가 있다.

코로나와 관련 하여 국내에서 방역체계를 무너뜨린 일차 확산은 대구의 신천지 교회였고, 코로나의 재확산을 일으킨 이차 유행은 서울의 사랑제일교회가 지목되었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의료적 관점이나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같은 협력이 중요한데, 일부 종교단체는 종교적 신앙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한다고 신자들에게 강조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관련 종교단체에 46억이라는 거액의 피해액을 청구하였다(서울신문, 2020.09.18).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신앙이 코로나를 이겨낸다는 신념을 가지고, 죽음보다도 종교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나아가서는 방역 당국에 대한 고발까지 강행했다(연합뉴스, 2020.08.26). 이런 현상을 목도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기독교 일부 단체에 대한 거부반응이지만, 넓게 보면 동시에 종교의 ‘무용론’이나 대중의 ‘탈종교화’를 가속화시킨다. 종교적 신앙이 국민의 건강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코로나 이후로 종교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사례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에 널리 유행한 페스트에 대한 교회의 대응방식이다. 기도를 통해서 페스트를 이겨내고자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몰살당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뉴올리언즈 미국의 한 목사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면역이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설교했지만, 그는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오마이뉴스, 20.04.02). 이런 맹목적 믿음은 현재에도 중세시대의 권위적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비극적 사례이다.

중세에 페스트가 대유행을 했고, 페스트가 끝나자 절대 권력의 중세교회는 현격하게 축소되었다. 이후로 종교재판에서 해방된 근대의 르네상스가 찾아왔다. 페스트는 1300년 초에 중앙아시아로부터 시작하여 유럽으로 확산하고 1351년에는 유럽 전체 인구의 30~40%를 몰살시킨 큰 사건이다. 이런 변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세 영주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땅을 경작하는 농부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대신하는 산업혁명을 촉진시켰다. 이런 역사적 진행 과정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제4차 산업혁명에서 마찬가지로, 아니 더욱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적용될 것이다.

2. 현실참여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현실참여는 종교의 사회적 개입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가 핵심이다. 종교적 의례 행위가 사회적인 현실개입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런 경향은 기존 특정 정당을 측면에서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정치 정당을 창당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실험은 중세시대 이후로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실패로 끝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오늘날 일반 대중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종교의 현실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종교는 나름의 정치적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 보니 사회 권력으로부터 종교는 박해를 받기도 했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종교는 직접적인 정치개입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필연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경우 대체로 전근

대적인 부당한 사회현실 속에서 부패한 권력과 사회를 개혁하자는 형식을 취한다. 한국에서 대표적으로는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70년 말과 80년대의 민주화운동에서 종교계가 적극 참여한 사례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코로나는 원칙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의제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일부 종교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대하는 것을 일반 시민은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80년대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은 일반 시민이 매우 적극적으로 종교의 현실참여를 허용한 사례이다.

대승불교의 핵심적 특징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이다. 현대적 사회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는 베트남의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에 의해서 1963년에 이루어졌다(후미히코, 2016). 그는 반전운동에서 시작하였고,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프랑스로 옮겨가 불교 평화단체를 1978년에 창설하였다. 이후 미국의 킵목사와 교류하면서 불교의 적극적이고 국제적인 사회참여 운동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사회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법정스님의 경우가 있다. 법정은 1960년 말, 1970년대에 5.16혁명 이후 군사정권에 맞서다 계엄법정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여태동, 2020). 법정은 『무소유』에서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이 과거처럼 부동자세로써 청산 백운이나 바라보며 초연하려 한다면 그런 종교는 없는 것만도 못할 것이다. 일체의 중생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곧 종교의 과제이기 때문이다(불교의 평화관/대학불연보, 1971.6).”고 말한다. ‘중생이 부딪치는 문제가 곧 종교의 과제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종교가 사회에 참여

해야 할 이유/정당성을 잘 보여주는 연구이다. 이런 ‘참여불교’ 혹은 ‘실천불교’는 국내에서는 80년대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물론 종교나 종교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참여 불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 시대의 화랑이나 고려 후기 무신 정권에서 승려가 무장을 하고 개입한 사례가 있고, 임진왜란에서는 승군을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다 ‘참여불교’의 형태라고 호칭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Sellie B King(2009)은 참여 불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먼저 타인에 대한 인간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불교적 가르침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들에 적용을 할 때’라고 말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면, 그것이 참여 불교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종교집단의 이기적 개입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것은 폭력적인 방법은 허용할 수가 없고, 평화적인 형태만을 참여 불교의 범주에 넣자는 주장이다. 물론 여기서 종교집단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노선갈등으로 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전쟁에 직접 관여한 ‘호국불교’를 비폭력의 ‘참여불교’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 반론은 당시 생명이 부당하게 위협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았나 하는 관점이 제기된다. 시대적인 상황이 불가피하게 폭력적인 개입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할 때 여전히 침묵해야만 하는가 하는 반론이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와 불교의 사회참여는 역사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면 종교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종교 역시 사회 속에서의 종교이고,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종교의 역할을 따로 논 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교의 사회참여도 결국은 사회의 ‘공동선’을 향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 기준점이 어긋나면 종교의 사회적 참여는 결국 실

패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참여란 것도 시대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사회는 변화되고 그때마다 종교의 사회적 개입이나 참여방식은 변경될 수밖에 없다.

III. 4차 산업혁명과 종교

현재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에 살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 ‘알파고’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이로 인한 앞으로 다가올 인간의 좌절과 소외감을 본능적으로 직감한다. 구겨진 자존감을 세워야 하는, 그만큼 종교의 역할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좀 더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왜냐면 종교의 문제는 곧 포스트-휴먼(posthuman) 사회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 코로나와 제4차 산업혁명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동은 제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된 키워드는 기계와 생체의 ‘융합’, 초고속 ‘연결’, 서비스 포함한 광범위한 ‘지능과학’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백종현 외 5인, 2017). 디지털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 사태는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것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에 훨씬 광범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깊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코로나 사태는 종식

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코로나 대유행은 4차 산업혁명을 더욱 앞당길 촉매자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산업혁명은 사회적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기술개발에서 비롯되었다. 이를테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고, 2차는 전기에너지의 활용이었고,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이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농경 사회의 핵심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전기에너지의 산업적 이용은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유통시킴으로써 정보의 홍수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가속화시킨다는 말인가?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집단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제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농경사회 이후로 지금까지 집단적 활동, 대면 사업에 익숙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다. 이런 상황에서 IT산업에 기반한 비대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욱더 상호소통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집콕 생활에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소통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초고속 통신망과 개인별 인터넷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초고속/초연결 시대에 익숙해질 것인데, 이것은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된 국면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는 온라인에 익숙해야만 생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자각하고 있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융합시켜주는 5G 이상의 초고속 통신망이 활성화되면,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개인들은 엄청난 정보를 단시간에 접속하여 이용하면서

더욱더 인간보다는 기계에 의존하면서 개인주의자가 될 것이다. 서로 만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개인적 대화가 원활하고 집단작업이 가능하다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담스럽게 꼭 굳이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설사 만난다고 해도 소규모 중심집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사회적인 관계 양상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비대면’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초고속 연결망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사물과 사물과의 ‘초연결(IoT)’을 창출한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 개인들은 2차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직장이란 ‘집단’문화에서 벗어나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자유로운 그만큼 고립된 ‘개별화’ 과정을 겪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물론 기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주체성의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개별화된 소통과 함께 창조적 인간상이 강조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를 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 영역이나 직업적 경계선이 무너지고 기계와 친해지면서 가족적 유대감이나 집단적 소속감이 약화 되는 개인의 사회적 양식이라고 정의한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주의’란 용어와는 다르게 사물인터넷과 조직문화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란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를 잘 설명한다고 본다.

코로나로 인하여 촉발된 비대면 현상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비대면 현상을 강요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강제적 조항이 풀리면서 대면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촉진되고, 과연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필자는 코로나의 비대면에서 필요했던 소통의 욕구를 초고속 통신망과

인공지능의 4차 산업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의 사업과 활동은 ‘개방되고’ 더욱 경고하게 제도적으로 ‘지속/유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개별화된 인간은 빈부격차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개방된 가운데 통제당하고’, ‘소통하면서 단절된’ 이원화된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개방/통제의 갈등은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조직을 관리한다는 중앙적 통제관리, ‘폐쇄된’ 체계보다는 사물과 인간이 융합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사물과 사물이 개별적으로 작동된다는 ‘개방된’ 플랫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플랫폼에 접속하는 개인들은 자유로운 만큼이나 통제되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가 관리되면서 원격으로 본인도 알지 못한 채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서 감시/조정당할 것이란 의미이다.

소통/단절의 갈등은 중요한 사회적 변동의 결과로서 강요했던 ‘거리두기’의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간과 사물의 초고속 연결망은 개인들을 잘 연결/소통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접촉면에서는 사회적인 집단활동의 약화 내지는 비대면으로 개인들을 고립/단절시키는 개별화 과정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본다. 이런 소통/단절의 개별화된 변화에 따라서 교육도 종교활동도, 정해진 장소(거대 건물)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학습보다는 각각 처한 환경(작은 재택)에서 이루어지는 주도적 학습이나 개인별 활동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영화 그녀 <Her>는 잘 보여준다. <Her>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영청난’ 문화적 혜택과 ‘편리한’ 세상을 살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처럼 개방되면서도 통제되고, 소통된 가운데 단절감을 경험하는 개별화된 인간들은 정신적으로는 상호 친밀감의 경험을 상실하면서 더욱 깊은 고독과 불안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2. 기도형과 구도형 종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인공지능과 같은 기계가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소외 문제를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포스트-휴먼’이다(박유신 외 3인, 2020). 포스트-휴먼은 근대 자아 중심의 인간관을 벗어나서 “인간과 동물, 인간과 환경,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서로를 형성하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임을 강조한다(홍성욱, 2019).” 이것은 불교의 인연(因緣)/연기(緣起)적 세계관과 매우 유사한 바로 곧 포스트-휴먼이란 생태적 자연을 포함하여 기계와의 친화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리킨다. 관계형성이 강조되는 까닭은 초연결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개방/통제, 소통/단절의 틈에서 갈등하는 인간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주체성의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의 주체성은 근대 이후로 줄곧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서 종교와 철학의 오랜 과제였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나’ 인지를 묻고, 일회성으로 닥쳐올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해탈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핵심된 영적 문제로서 종교활동과도 직결된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인 죽음, 자유, 삶의 의미 없음, 고립 등과 같은 실존의 문제(I. Yalom, 1980)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종교는 미래사회에서도 역시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마을에는 종교적 시설이 있고, 그것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다. 아니면 마을에서 가까운 산림에 위치하거나 한다.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은 대체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사찰이나 교회에 출근하면서 시작된

다. 이게 우리의 통설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속에서 종교적 활동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 교회나 사찰에 가지 않고 집콕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부딪친다. 하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사찰이나 교회에 가야만 한다는 고집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나 사찰에 꼭 가지 않아도 개인의 집에서 충분히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갈등에서 우리는 다시 종교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필자는 종교를 크게 ‘기도형’과 ‘구도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도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상정하고, 절대자에게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현실적 소망을 기도한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절대자는 부처님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 기도형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족한 중생 혹은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상정한 절대자에게 의존하고 현실적 소망을 구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이 기도이고, 종교란 바로 ‘기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구도형은 진리는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밖의 절대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밖에 존재한다는 절대자란 우상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에 불과한 까닭에 허구라고 본다.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영적인 체험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경험이며, 이것은 특정한 장소나 모임을 통해서 성취되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종교활동이란 본래적 자기 본성에 대한 질문이고 자신을 향한 구도의 여정이고 의미를 발견하는 깨달음의 경험이다.

전통적인 용어로 기도형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타인에 의지한다는

타력문(他力門)이고, 구도형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여 진리를 구한다는 자력문(自力門)에 해당된다. 타력문은 절대자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집단적인 의례와 기도가 중요한 가치가 된다면, 자력문은 자신의 내적인 역량을 믿고 자기 내면을 탐색하는 명상과 치유가 중요한 종교적 행위가 된다. 기도형은 타력에 의지하기에 의식이 밖으로 향한다면, 자신의 역량에 의지하는 구도형은 의식이 내면으로 향한다. 그렇다 보니 기도형은 사찰이나 교회처럼 정해진 한 장소,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외형적이고 집단적인 형식으로서 ‘의례’를 선호한다. 구도형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스스로 대중과 거리를 두면서 스승의 개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을 탐색하는 ‘명상’을 중시한다. 물론 이들 양자는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새의 양 날개처럼 함께 공유할 때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코로나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는 상황에서는 기존 기도형의 방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집단적인 종교 활동으로서 법회나 예배는 금지되거나 삼가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개별적 활동을 찾게 되는데, 이것의 대안으로 ‘구도형’이 종교활동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개인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구도형의 종교가 시공간에서 자유로운 디지털시대에 더 잘 어울리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좀 더 편안하게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집단적’ 기도형보다는 미래사회에서 ‘개별적’ 구도형이 더 적절한 종교형태라고 말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점과 관련하여 필자는 작년 2019년 7월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기도형 종교,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 온다.’는 다소 도전적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2019. 07.09). 당시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2개월 전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부 기도형 종교집단이 대중들로부터 사이버나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확실하게 목도하고 있다. 만약에 종교가 절대자를 향한 기도이고, 그것이 집단적인 의례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고집한다면, 미래에 종교의 역할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왜냐면 오늘날 첫째로 출생, 결혼 그리고 죽음과 같은 인간의 중요한 통과의례가 병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종교적 영역에서 이탈하여 기도나 제사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둘째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무작정 신봉하지 않을 만큼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셋째는 인구절벽과 일인 가구의 증대로 집단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으며, 넷째는 제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개별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건강과 같은 위협과 경제적 빈부격차의 심화로 분배와 복지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 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나 기도만으로는 실존적 현실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다. 중세에 페스트 유행으로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무당과 주술사의 시대가 끝났듯이, 코로나로 인하여 집단적 신앙 중심의 기도형 종교의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구도형 종교형태가 금방 외형으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

IV. 현대 종교의 새로운 역할

1. 힐링 문화의 반성적 검토

현재 코로나 사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근본적인 사회적 변동은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현대 종교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참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종교의 사회참여 명분은 사회문제에 대한 자비와 사랑에서 오는 관심이다. 사찰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종교는 스스로 권위적 지위에 올려놓고 시작한다. 현재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한쪽은 해탈을 말하고 다른 쪽은 구원을 말한다.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속사회는 교화와 치유의 대상이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자 한다.

기도형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중생과 피조물임을 인정하라 권한다. 그래야 절대자에게 신앙으로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리석은 중생과 피조물에 의해서 구성된 사회는 정치적 권력과 조직구조에서 문제가 있기에 플라톤의 이데아적 국가처럼 종교와 철학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반면에 구도형의 종교는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인 권력이나 구조를 개혁하려는 관점보다는 그것들의 원초적 형태를 개인적인 내면의 문제에서 찾으려고 한다. 물론 개인의 내적의식은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었기에 구조의 변경 없이는 개인의 변화는 완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만약에 이런 입장에 선다면 이것은 기도형 종교의 집단적이고 의례적 행동으로 표현되고, 종교의 정치적 개입은 더욱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불가분한 항목일 것이다.

구도형 종교는 사회적인 구도 역시 개인 내면에서 출발된 것이란 입장을 취한다. 사회문제는 개인의 미해결된 과제의 반영이고 투사라

고 본다. 그렇다 보니 구도(求道)의 중요한 도구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명상과 타인에 대한 자비에서 비롯된 힐링을 중시한다. 구도형 종교의 핵심과제는 내적 성찰과 평화에 중시하는 ‘명상’이고, 밖으로는 자비에 기반한 치유 활동으로서 ‘힐링/상담’이다.

지난 10년 전에 열풍이 몰아쳤던 힐링문화에 대한 종교 사회학적 의미를 필자는 이전에 논의한 바가 있다(인경, 2018).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급변하게 되면서 당시의 논의를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왜냐면 힐링 문화가 대두하는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계의 노력이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추어진 상태로 보이지만, 의료적인 코로나 문제가 종식 되면 이후에 더욱 강력하게 대두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힐링 문화에 대한 논의를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연계하여 일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했던 다음에, 종교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란 시각에서 명상과 힐링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현대 종교가 타인의 고통을 배려하면서 ‘공동선’이라는 합의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은 기도형이나 구도형에서 모두 다 가능한 선택지이다. 종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힐링문화를 접수할 수 있을까? 실제로 기존 종교집단은 과도한 경쟁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대중에게 내적인 힐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종교활동의 일부로 포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템플스테이’ 힐링 프로그램이다. 물론 힐링은 대중적인 집단적 접근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고요한 산사와 자유로운 개인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인 까닭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힐링문화의 열풍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자. 우리 사회에서 힐링 열풍은 2010년 이후에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지난 10년간 중요한 이슈였다. 이제 지난 10년의 힐링문화에 대

해서 반성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먼저 사회적으로 왜 힐링이란 열풍이 불었는가? 그것은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힐링이 대두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점에 대해서 ‘힐링열풍의 배경과 발전방향’이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이승철 외, 2013)가 잘 분석하여 주고 있다. 여기서는 힐링 열풍의 배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과다/ 1인 가구 확산으로 배려의 위기/ 사회 정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정신적 치유에 대한 욕구 증대’ 등 4가지를 기술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2000년대의 ‘웰빙’을 제치고 2010년에 ‘힐링’이 사회적 문화코드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힐링이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결국은 개인들의 심리/정신적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그로 말미암아 힐링문화가 돌풍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필자는 여전히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 보고서는 힐링이란 사회적인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결국은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힐링이 필요한 시대’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힐링 열풍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코로나 이전까지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인경, 2018).

첫째로 힐링은 방송사에서 ‘기획된 힐링’이란 비판적 시각이다. 힐링 열풍은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SBS 2011.07.18.~2016.02.01.)’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에 의해서 흥하게 되었다는 평가는 부인할 수가 없다. 방송사마다 다양한 토크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문화의 전파에 열을 올렸다. 사실상 힐링 열풍은 바로 이런 힐링 방송 프로그램들이 주도하였다. 이들 방송은 스타성을 갖춘 연예인들이 힐링 프로그램에 초대되면서 삶의 애환을 이야기하는 고통의 고백과 위로가 주류를

이룬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토크쇼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힐링은 진정한 의미로서 힐링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고 방송사의 취향에 맞는 그들의 힐링일 뿐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주도하는 힐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일어났다. 먼저 ‘힐링, 행복실현의 진정한 도구인가’(서길완, 2013)에서는 힐링을 ‘패배에서 위안을 가르치는 치유 내러티브’라고 정의한다. 토크쇼는 심리적인 치료를 가정의 거실로 옮겨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적으로 보면 방송사들은 토크쇼의 힐링 관련 새로운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했다고 본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토크쇼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고,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부득이 상처와 아픔을 전제하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고통을 과장하고 어설픈 위로로 시청자들에게 불편감을 야기시키는 역기능도 있음을 말한다.

둘째는 힐링 서적들에 대한 나타난 힐링에 대한 비판이다. 방송에서 나타난 힐링이 주로 ‘조언’ 수준에 머물고, 이런 종류의 조언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더불어서, 힐링 서적들의 위안과 조언은 다 허무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책을 읽을 때는 그럴듯해도 막상 책을 덮고 나면, 현실문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들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힐링 푸드를 먹고, 힐링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힐링은 덧없고, 힐링과 관련된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 상위를 독식하는 우리나라가 덧없다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힐링이라면 빨리 힐링의 시대가 지나갔으면 좋겠다(서민, 2014)는 것이다.

셋째는 힐링 담론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것은 ‘초기 힐링 담론의 자기 통치 프레임과 담론효과(김은준, 2015)’인데, 여기에 따르면 힐링은 개인들을 위로가 필요한 유순한 개인으로 만들고, 시대적 문제나 사회적인 구조적 요인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탈정치화한다는 것이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대안처럼 등장을 했지만, 힐링은 신자유주의 거대질서에서 또 하나의 소비였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런 비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좀 더 심층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과 출판에게 위로와 조언을 넘어선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는 과도한 기대가 아닐까 한다. 예능 프로그램은 끝내는 오락이고 대중적인 힐링 도서는 전문적인 서적이 아닌 까닭에,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본질적으로 치유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힐링에 대한 의미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 차분하게 힐링 열풍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근본적으로 힐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힐링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힐링 문화의 열풍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잠들어버렸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왜냐면 10년 전 우리의 힐링 열풍은 방송국 기획물이었고, 예능 프로그램의 오락이었고, ‘힐링 열풍’에는 ‘힐링’이 없었다. 일종의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왜 힐링이 필요했을까? 그 문제는 현재는 어떻게 되었나? 10년 전에 힐링 열풍이 일어난 개인 및 사회적인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해결된 것인가? 대답은 이렇다. 당시에 제기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욱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들의 스트레스 과다이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 불안과 경제적 걱정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가 있다(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9, 2020). 한국은 코로나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Greatest Threat)으로 보는 응답율이 89%로 1위를 기록했고,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로 1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둘째로 1인 가구 확산으로 배려의 위기는 마찬가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인가구는 확대와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ktv 국민방송, 2013, 정책&이슈, “1인 가구 증가는 개인주의 확산 때문”). 이점은 코로나 사태와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7년 전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0년 2월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29.8%로 처음으로 ‘부부+자녀’ 가구(29.6%)를 넘어섰다(한스 경제, 2020.02.03.). 오는 2045년에는 1인 가구가 36.3%까지 증가해 전체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셋째는 2010년 당시 사회 정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심하였는데, 사회 고위층의 부정적인 행태들이다. 이점은 매우 정치적인 관점이다. 지지 정당이나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이고 변동요인이 될 수가 있다. 최근에 이를테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국 사태로 지난해 가을에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흥역을 치루었다. 검찰개혁과 연결되면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거리에서 서로를 향한 거대한 함성을 질러댔다.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는 늘 중요한 이슈이다.

넷째는 정신적 치유에 대한 욕구 증대인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10.08., “극단 선택하는 2030 여성 급증...코로나 블루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2020.10.08., 한국 근로자 84%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요”). 코로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고도 기술력으로 빈부격차와 인간소외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갈수록 깊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힐링/상담의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힐링문화가 돌풍처럼 일어났지만,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우리 곁에 그대로 더욱 깊은 그림자로 남겨져 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어찌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우리 문명의 근본적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힐링 문화’와 ‘힐링’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진정한 힐링을 차별하게 실현해 가는 길을 발견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다. 만약에 코로나가 해결되면, 커튼 뒷쪽에 감추어진 이런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종교는 마땅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함께 아파하고, 힐링의 문제를 종교의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2. 종교와 명상치유

사실상 힐링 ‘문화’는 10년 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힐링’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종교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자 하는 까닭에 이런 힐링의 가치에 대해서 마땅히 관심을 보일 것이다.

힐링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병이나 상처를 고치거나 낫게 하거나, 혹은 슬픔이나 고민 따위를 달래고 회복시키거나, 마음을 깨끗이 하거나 정화하는 치유’를 뜻한다(시사 영한사전, 2010). 여기에

따르면 힐링이란 코로나와 같은 병이나 상처를 고치거나 낫게 한다는 것은 ‘의료적’ 관점에서, 슬픔이나 고민을 달래고 회복시킨다는 것은 ‘심리상담’적 요소가 있고, 마음을 깨끗이 하거나 정화하는 것은 ‘종교적’ 관점까지를 포섭하는 매우 넓은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치유나 힐링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이 종교적 맥락인지, 심리상담인지, 아니면 의료적 관점에서 사용한 의미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힐링이란 용어의 다양한 수준별 스펙트럼이 치료, 고민에서 회복, 마음의 정화란 마음의 세 영역을 그대로 잘 반영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가 이들 3영역을 모두 포섭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이들을 모두 통섭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치료’는 의료분야에, 고민으로부터 ‘회복’은 심리상담 영역으로, 마음의 ‘정화’는 명상에 자리를 내주었다. 마치 미학, 교육학, 논리학 등을 독립시키고 빈 둥지가 된 20세기의 철학처럼, 마찬가지로 종교도 그야말로 ‘빈 둥지’를 지키는 신세가 되었다. 종교는 신앙이란 기도밖에 남겨진 게 없다.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천착하게 되지만, 기도와 신앙적 접근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코로나와 개인화된 제4차 산업혁명 이후는 쇠퇴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현대 철학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듯이 현대 종교는 스스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할 처지에 있다. 대안은 뭘까? 이미 우리는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바로 ‘명상’이고, ‘힐링’이다. 명상과 힐링에 대해서 종교계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명상과 힐링은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종교계는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 왜냐면 오랜 역사 속에서 명상과 힐링은 종교의 본래적인 기능에 속해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종교의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통로로서 ‘명상’은 이미 치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특히 구도형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코로나 이후 제4차산업 시대에 명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교와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명상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 관리하는 복지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그 반증이다.

물론 반대의 견해도 있다. 일부 보수적 종교집단에서는 오히려 명상과 같은 새로운 영적 운동은 기존 종교를 대신할 것이라는 경계의 눈초리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런 관점은 기도형 종교적 관점을 가진 이들의 방어적인 태도라고 보여진다. 넓게 보아서 대체로 종교계는 방송 프로그램과 힐링의 상품화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도, 명상과 힐링 문화에 대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체계 내로 수용하려는 움직임 보여준다(인경, 2018).

이러하면 ‘가톨릭교회의 관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힐링 신드롬(윤빈호, 2012)’을 보면, 한국사회는 치유가 필요한 사회라고 진단하고,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힐링 종교였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힐링은 다분히 심리 치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즉 누군가 나의 이웃되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의 힐링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와 영혼을 구원하는 차원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힐링에 대한 불교의 관점도 마찬가지다. 붓다는 힐링의 실천자였고, 힐링의 방법을 제시한 모델로 인식된다. ‘문제를 비켜가지 않는 붓다의 힐링법(법인스님, 2013)’을 보면, 현대인들은 다들 힘들어하는데, 쉬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래서 산사를 찾고 멘토의 강의에 열

광하고 (템플스테이와 같은)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한다. 힐링이란 괜찮다고 위로하고 손잡아주는 것이지만, 붓다는 힐링에 대한 정직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괴롭거나 즐거운 우리 삶의 현실은 바로 나의 행위와 그 결과이기에 상처는 일시적으로 은폐하거나 봉합하는 것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설플 위로는 개인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탐욕과 독점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사회구조에 면죄부를 준다고 것이다. 위로를 받기 전에 냉엄하게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힐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논단은 ‘피로 사회에서의 마음 돌봄-한국사회 힐링 열풍에 대한 목회 신학적 응답(정연득, 2016)’이다. 여기서는 일단 현대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한다. 피로하기 때문에 힐링열풍이 대두된 것이고, 이것은 결국 다시 사회의 요구에 최적화되는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진 까닭에, 이것은 진정한 치유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진정한 힐링을 제공하는 마음 돌봄이라는 공동체를 제안한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를 경험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피로에 공감적으로 다가갈 것이고,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호돌봄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종교계의 힐링에 대한 시선은 우선적으로 따뜻하다. 힐링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힐링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힐링문화가 가지는 역기능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힐링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런 태도는 기존의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성을 체계 내부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와 힐링과의 관계설정에서 종교계는 힐링 프로그램을 종교적 활동의 일부이거나 사회적 역할로서 세속에 개입하는 통로가 된다. 종교집단의 명상수행이나 영성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시각을 대변한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는 반대의 염려도 있다. 힐링은 내세의 구원보다는 현세에서의 깨달음이나 구원을 강조하고, 치유적 명상과 힐링이 종교적인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힐링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힐링이라는 권력이 종교를 포섭한다는 말이다(심보선, 힐링이라는 이름의 권력, 2013). 다시 말하면 힐링 열풍이 가져다준 메시지는 *이제 힐링이나 영성은 종교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식과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단체를 통해서 혹은 종교적 ‘의식’을 거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다른 방식의 활동 이를테면 명상, 요가, 숲치유, 상담,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통적인 종교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 선다면, 기존 기도형 종교집단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에서의 새로운 방식’이란, 힐링과 관련된 명상, 요가, 기수련과 같은 ‘신영성운동’이란 맥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보수적 종교단체들은 힐링 문화와 연결된 새로운 영성운동에 대해서 방어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교회는 신영성운동이 단순히 생활체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활체육의 차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박영호, 2017).

여기서 말한 바처럼, 개인화된 새로운 성향의 영성운동은 기존 종교단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새로운 젊은 세대는 자유롭고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사찰이나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대신에, 자신의 일상 삶 속에서 나름의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관료화된 교회뿐만 아니라, 보수적 사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존

재한다. 이런 입장이 극대화되어 표출되면, 힐링문화는 비판받고 부인된다. 힐링문화는 값싼 위로라고, 힐링은 곧 지나갈 트렌드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격려이고 신자유주의적 이윤추구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개인적 생활체육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잠시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힐링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가치 절하로서 일부 보수적 사회학자들이나 종교집단의 기성세대들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물론 그들의 바람대로 이렇게 힐링 문화는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명상과 힐링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다. 저항은 할 수 있겠지만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힐링 ‘문화’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힐링’은 코로나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더욱 절박하게 필요할 것이다. 왜냐면 하이테크의 기술시대는 비대면 시대로서 개인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개별화된 가운데 엄청난 속도로 손쉽게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고, 초연결 시대에서 정해진 공간에 모여 대규모 집회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며, 개인들은 감정적인 문제를 안고서 소외와 다양한 정신적 장애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구도형 종교의 핵심요소로서 명상과 힐링은 새로운 종교운동, 혹은 영성운동의 동력(전명수, 2015), 중요한 키워드로서 작동할 것이다.

물론 명상의 대중화는 기존의 종교적인 형식을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주체적인 영적 체험에 충실한 방식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종교에 위협적 요소가 분명하게 감지가 된다. 이것은 코로나와 인터넷 발전으로 더욱 촉진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명상을 중심으로 한 힐링 문화는 기존의 체계나 기득권적 질서에 편입을 거부하는, 새로운 자기발견과 구도적 순례의 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기도형 종교보다는 구도형 종교의 형태이

다. 이런 구도적 영성운동은 개인주의적인 혹은 불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좀 더 깊게 발견된다. 이것은 모든 중생은 불성,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에 근거한다.

동양종교는 특정한 종교적 장소(사찰이나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명상과 같은 영적 수련을 통해서 힐링이나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보듯이, 오늘날 힐링 문화와 명상과 같은 새로운 영성운동이 반드시 기존 종교적 영성과 대립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들은 이미 충분히 기존 종교집단 안으로 수용되어 함께 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사회적인 변동에 맞추어서 맞춤형 힐링과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안 마련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점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는 성패를 가늠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지점이다.

필자는 구도형 종교의 본질을 명상과 힐링이라고 본다. 명상에 의한 영적 깨달음의 체험과 개인 및 사회적 아픔에 대한 ‘치유’가 없다면 종교는 정말로 소멸해버릴 것이다. 대승불교의 모토인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란 현대적 구현은 상구보리는 바로 ‘명상’으로, 하화중생은 바로 ‘상당과 치유’로 성취된다. 그러니 힐링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오랜 시절부터 종교는 스스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성찰과 치유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역할에 대해서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여 가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코로나 종식과 함께 문화적 현상으로서 힐링 열풍은 지나갈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근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는 한에서 영적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V. 맺는 말

본고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대유행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대면적 활동에 기반한 종교활동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코로나 불안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할 인간소외와 경제적 스트레스 문제 등으로 종교집단은 기존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고찰했다. 첫째로 전통적인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치개입과 불교의 사회참여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선’에 사회적 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종교를 집단의례 중심의 ‘기도형’ 종교와 개인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내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구도형’ 종교를 구분하여 종교의 사회적 참여 양식을 설명한다. 셋째는 지난 10년 동안의 힐링문화를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코로나 이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종교의 사회적인 역할로서 명상과 힐링의 중요성을 재검토하여 강조한다.

힐링 열풍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각박한 우리 사회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기능했고, 많은 이들이 위안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 있다. 반면에, 힐링문화는 단지 트렌드일 뿐이고, 진정한 치유적인 기능을 갖질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대체로 종교계는 힐링문화를 적극적으로 종교 체계 내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힐링이 종교를 포섭하는 경향도 대두된다는 시각도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명상, 요가, 기수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힐링, 영성 혹은 종교를 찾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 아닌가 한다.

이런 경향은 기존 종교의 역할에 대한 회의나 반성의 의미를 가진 까닭에 코로나 이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존 기도형 종교는 개별화된 구도형 종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영성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구도형 종교가 강조하는 측면은 우리 본성에 대한 ‘깨달음’과 ‘영적 체험’이 함께 하는 삶이란 점이다. 만약에 이게 결핍된다면, 명상과 힐링은 기도형 종교가 그랬듯이 역시 세속화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때문에 명상과 힐링은 깨달음과 영적인 삶을 향한 ‘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법정(1976), 『무소유』, 서울: 범우사, 1996 판.
- 인경스님(2012), 『명상심리치료』,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 김은준(2015), 「초기 힐링담론의 자기통치프레임과 담론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38-71, 한국언론정보학회.
- 김지영, 신나영(2015), 「힐링의 개념분석-건강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종양간호학회지』 15(1), 51-58, 대한종양간호학회.
- 박성현(2011), 「현대사회의 문제와 명상치유」, 『한국명상치유학회지』 2(1), 63-70.
- 박영호(2017), 「템플스테이, 종교와 관광의 경계」, 『사목정보』 10(4), 52-56, 미래사목연구소.
- 박유신 외 3인(2020),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수업』, 학이시습.
- 법인스님(2013), 「문제를 비껴가지 않는 붓다의 힐링법」, 한겨레 수행·치유 전문 웹진-휴심정
- 백중현 외 5인(2017),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먼사회」, 『철학과 현실』 20-128.
- 여태동(2020), 「60년대 말 70년대 중기 法頂의 사회민주화 운동 研究 -『영혼의 모음』에 나타난 원고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28집, 255-296.
- 윤빈호(2012), 「가톨릭교회의 관점에서 본 우리사회의 힐링 신드롬」, 『사목정보』 5(11), 13-16, 미래사목연구소.
- 이승철(2013), 「힐링을 힐링하다-힐링열풍의 배경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제897호, 삼성경제연구소.
- 인경(김형록, 2018), 「Socioreligious Meaning of Healing Culture in Korea」, 『명상심리상담』 Vol.19,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심보선(2013), 「힐링이라는 이름의 권력」, 『문학과 사회』 26(2), 249-261, 문학과 지성사

- 서길완(2013), 「힐링, 행복실현을 위한 진정한 도구인가?」, 건국대학교 몸 문화연구소 하반기 학술대회.
- 서민(2014), 「힐링이여, 가라!-기생충학자가 본 힐링 열풍의 명암」, 『시민과 세계』 (24), 246-257,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 전명수(2015), 「영성과 힐링의 사회적인 의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4, 1-34,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 정연득(2016), 「피로사회에서의 마음돌봄-한국사회 힐링열풍에 대한 목회신학적 응답」, 『장신논단』 48(4), 253-279,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 홍성욱(2019),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 <연합뉴스>(2020.09.23), 「코로나 사망 20만 명 넘은 美...“한국전·베트남전 전사자 2.5배”」
- <뉴스1>(2020.09.24), 「코로나 탈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 <중앙일보>(2019.07.09), 「인경스님, 기도형 종교,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 온다.」
- <KTV 국민방송>(2013.02.04.), 「정책&이슈, “1인가구 증가는 개인주의 확산 때문”」
- <연합뉴스>(2020.10.08), 「극단 선택하는 기사 2030 여성 급증, 코로나 블루 대책 마련해야」
- <연합뉴스>(2020.08.26),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정부가 내린 예배금지 조치를 8월 26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종교 자유 침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였다.」
- <아이뉴스24>(2020.10.08), 「한국 근로자 84%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요”」
<https://ko.wikipedia.org/wiki/>
<http://www.sporbiz.co.kr>
- Irvin D. Yalom(1980), *Existential Psychotherapy*, USA: BasicBooks.
- Sellie B King(2009), *Socially Engaged Buddhism*, University of Hawaii Press, Pew Research Center, SEPTEMBER 9, 2020.

■ Abstract

Religion's Social Role in the Post Corona Crisis

Kim, Hyung-Rog(Ven. In-Kyung)

This paper aims to reflect on the social role of religion in the corona crisi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social distancing arising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religious activities based on large-scale activities have shrunk to a very serious level. Not only corona anxiety but also human alienation and economic stress that will occur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center, the religious group is contemplating a new social rol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thod.

In this regard, this paper considers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role of traditional religion is critically reviewed by Christianity's political intervention and Buddhism's social participat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consensus on the 'common good'.

Secon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 high-tech society, the non-face-to-face phenomenon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and humans will undergo a process of individualization by fusion with objects. Individualized humans will repeat the conflicting experiences of openness/control and communication/disconnection.

Third, in this period, rather than the "prayer-type" religion centered on group rituals, the "constructive" religion that emphasizes inner enlightenment while pursuing individual freedom is considered to better explain the social participation style of future religions.

Fourth, it reflects on the healing culture of the past 10 year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editation and healing as a social role of a new religion in resolving human suffer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Corona.

Keywords ● corona, prayer type, seeking-thruth type, meditation, healing, posthuman, 4th Industrial Revolution.

▮ 논문투고일 : 2020. 11. 25 ▮ 심사완료일 : 2020. 12. 6 ▮ 게재확정일 : 2020. 12. 10